

# 지역의 산업분석에 있어서 가치사슬과 지역산업생태계의 의의와 과제

홍원표(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)

## <목 차>

1. 왜 현시점에서 지역 산업분석이 중요한가? 주력산업을 중심으로
2. 지역 산업분석의 도구로서 가치사슬구조와 지역산업생태계
3.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성 요소, 분석방법 및 그 의의
4. 신성장동력산업 지역산업생태계 분석의 시행착오: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사례

## 1. 왜 현 시점에서 지역 산업분석이 중요한가? 주력산업을 중심으로

○ 지난 약 20년 동안 충남은 대기업을 수출제조업을 매개로 글로벌 제조업 네트워크에 편입되었음

- 충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, 철강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자동차 5개 산업은 주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이르는 기간 충남(서북부지역)에 입지
- 그 결과 5개 산업은 2010년 기준 충남 전체 GRDP의 45.5%, 고용의 12.0%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이 되었음
- 이에 따라 충남은 첨단산업지구와 지역 농업과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음
- 이에 따라 충남은 제조업을 매개로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음

- 이러한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은 “분공장 경제”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
  - 이들 주력산업군은 지역에 이식된 산업으로서 지역적 연계보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의 연계가 큼
  - 이에 따라 장치산업 및 대량조립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, 지역 생산자 서비스의 미비, 제조업과 연계가 없는 1차 산업과 소비자서비스라는 특징을 보임
  - 학술적으로 경제지리(economic geography)에서는 이를 “위성 신산업 지구”로 포착하고 있음

#### <위성 신산업지구와 지역>

- “위성(Satellite) 산업지구”는 선진국 주변지역이나 개도국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산업지구로서, 국지적 네트워크는 공급자연계든 고객연계든 매우 미약하고 비 국지적 공급자연계와 고객연계가 향한 특징을 가짐
- 입지 업체들은 대부분 다지역 또는 다국적 기업의 분공장이기 때문에 장거리 또는 국경을 넘어서 네트워크가 발달하며 대량생산체계가 중심을 이룸
-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조정기능이 존재하지만 지구 내에 입지한 업체들 간에는 상호 협력관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

(출처: 박삼욱 「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의 형성: 이론과 사례」 中)

- “분공장 경제”를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경제역량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만시지탄이나 매우 시급한 상황임
  - ‘위성 신산업지구’가 ‘성숙형 위성산업지구’로 발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, 오히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에 따라 쇠퇴할 수도 있음
  - 최근 충남의 소득의 역외유출이 문제시되어 ‘순환경제’가 화두로 되었으나 이를 위한 정책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임
- 대기업 중심의 “분공장경제”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뿐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의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함

### <위성 신산업지구의 발전 가능성>

- 위성산업지구로부터 발전된 성숙형 위성산업지구는 산업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숙련된 기술과 경영기술이 지역에 확산되고 이에 따라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 사회에 파급되고 신설기업이나 분리신설기업이 국지적으로 창출될 수 있게 됨
- 대량생산체제의 비국지적 뿌리내림이 아직도 산업지구를 주도하지만 지역에서 새로 창출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연성과 국지적 뿌리내림이 형성되기 시작
- 대부분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지만 차츰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단체가 신산업지구의 기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됨

(출처: 박삼욱 「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의 형성: 이론과 사례」 中)

### <신산업지구 유형의 개념적 모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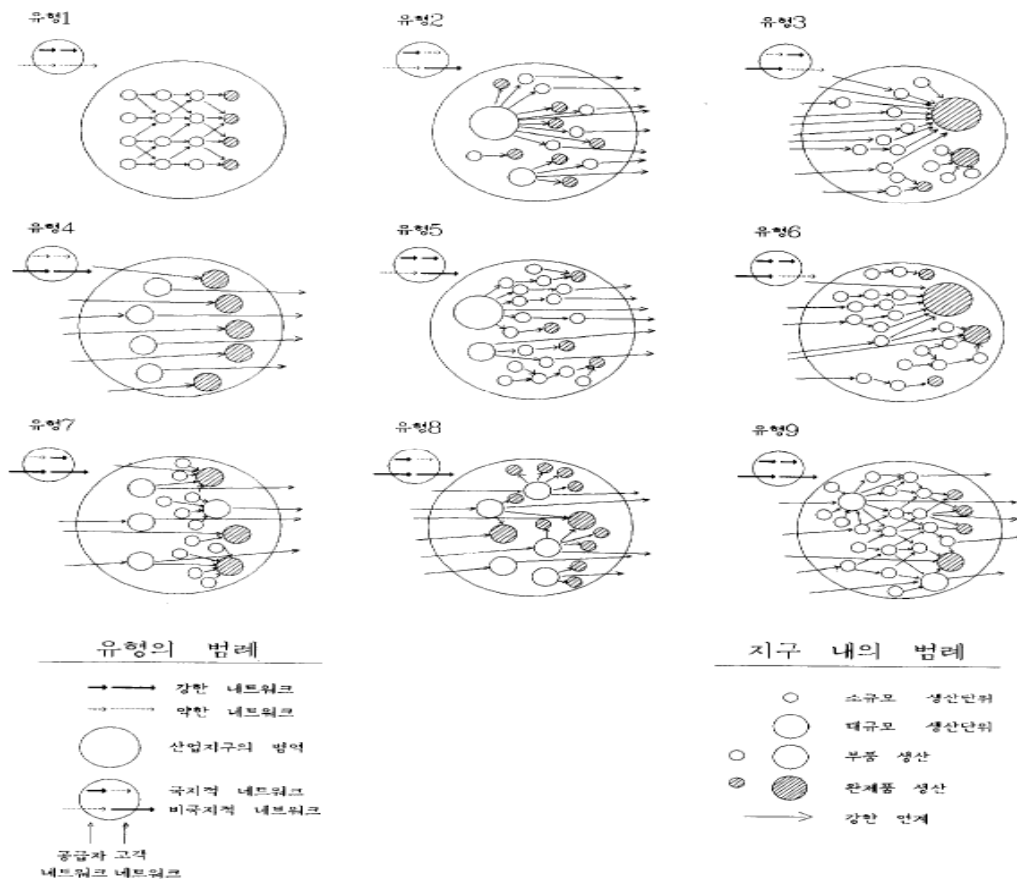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신산업지구 유형의 개념적 모형

(출처: 박삼욱 「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의 형성: 이론과 사례」, 1994, 대한지리학회지 中)
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,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책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
- 대기업과 지역이 Win-Win할 수 있는 접점은 기업지원서비스(생산자 서비스)의 국지화에 있음
- 대기업은 효율성 증대를 위해 非핵심기능을 외주화하는 것을 선호하며, 이 비핵심기능은 대개 기업지원서비스인 경우가 많음
  - ※ 기업지원서비스가 외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이를 내부화하거나 역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데,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: 회계, 설비 유지보수, 사택 등

○ 지자체는 기업지원서비스의 국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전개해야 함

- 기업지원서비스의 국지화 관련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현지 기업은 역외 기업의 현지화(해외투자유치 포함), 대기업 내부의 스핀오프, 신생기업의 출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됨
-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잠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를 원활히 하며, 관련 인력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함
- 이를 통해 지자체는 기업지원서비스 관련 노동시장의 형성과 기업활동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지역경제의 저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활적

○ “분공장 경제”의 국지화를 위해서는 산업 및 산업주체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함

- 분공장 경제를 어떻게 지역의 경제저력 강화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출발점으로 하여 조사연구가 수행되어야 함
- 현재 산업구조분석에 대한 것이 통계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, 이러한 통계자료는 산업구조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일부분만을 제공하고 있음
- 이러한 분석은 개별 기업단위의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므로, 통계자료 등 이차자료보다는 현장조사를 통한 일차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

## 2. 지역 산업분석의 도구로서 가치사슬과 지역산업생태계

- 지역의 산업분석은 “지역”과 “산업”의 정의(definition)와 관련하여 그 경계의 획정이라는 고유문제가 존재함
- 산업분석이란 특정 산업의 내부적 구조와 타 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, 그 성격 상 “산업”의 획정 및 산업주체 간 관계 설정을 전제함
  - 산업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작용에 대해 일정한 기준으로 관심 산업과 타 산업의 경계를 획정해야 함
  - 또한 산업주체 간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포착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며, 최근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에서 사회학적, 생태학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음

구분	포착 대상	산업주체 간 관계 구조
경제학적 접근	부가가치	단계별 투입과 산출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및 전이
사회학적 접근	기능적 관계	기능적 분업·협업에 근거한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
생태학적 접근	에너지연쇄	먹이사슬의 생산자-포식자-분해자 간 에너지순환 구조

- 이러한 산업 간 경계의 획정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전,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생명주기의 단축, 산업의 융복합화 경향으로 그 동태성이 강조되고 있음
  -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인해 각 생산 과정이 동일 공간범역이 아닌 지구적 범위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짐
  -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음
  - 산업의 융복합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합쳐짐에 따라 전통적 산업구분의 적실성이 약화
- “지역”의 산업분석이란 관심 산업의 획정뿐 아니라 지리적 영역(territory)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산업의 획정과 지리적 영역 간 불일치 문제가 상존함

- 산업은 원래 비공간적 개념이나, “지역”의 산업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임
- 관심 산업 혹은 업종이 주어진 지리영역에서 100% 생산·소비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
- 특히 지역의 산업분석은 지역산업의 발전 또는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지리적 인접·집적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
- ※ 대표적 지역산업정책인 산업 클러스터는 도시화경제, 국지화경제 이익과 암묵지(tacit knowledge) 및 면대면 접촉의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

○ 따라서 지역의 산업정책은 곧잘 “업종특화 전략”으로 해석되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음

- 지역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그 속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전략으로서 업종특화 전략이 제시되고 있음
- 클러스터 전략은 도시화경제, 국지화경제 이익과 암묵지(tacit knowledge) 및 면대면(face-to-face) 접촉의 중요성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음

○ 지역 산업분석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대표적인 것이 가치사슬 접근이 있음

- 가치사슬은 산업 내 생산과정에 따라 부가가치의 형성과 이전을 중심으로 분석
- 가치사슬분석은 역내 입지 산업에 대하여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속에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찾아내고 전후방 연계상의 강점 및 취약분야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공급네트워크분석(SNA), 가치사슬분석(VCA)은 유사하나, 전자는 공급주체 사이의 네트워크, 후자는 생산과정에 따른 부가가치의 증감을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
### <공급네트워크분석의 장점과 단점>

- 현실적으로 가치사슬분석이 공급네트워크분석으로 대체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공급 주체 간의 정성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임
- 가치사슬분석은 생산과정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과 전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수치화 위주임
- 공급네트워크분석은 공급주체 간 관계를 납품관계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으나, 정성적 분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

○ 그러나 지역의 산업구조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가치사슬 접근은 분석 대상의 협소, 정성적 분석의 소홀 등 문제를 지니고 있음

○ 가치사슬 접근은 분석대상을 관심 산업(업종)의 직접적 공급자 및 고객만을 대상으로 함

- 생산단계별 투입산출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직접적 공급자, 생산자, 직접적 고객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기업지원서비스(생산자서비스)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측방산업연계를 고려하지 않거나 소홀히 다룸
- 그러나 이러한 측방산업연계는 식별하기가 곤란하며, 계량화하기가 곤란하여 대개 무시되고 이를 인프라서비스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
- 또한 가치사슬의 “지역성”의 강조로 인해 원재료의 채취에서 최종소비에 이르는 제품(서비스)의 소주기에 대해서는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

○ 또한 가치사슬 접근은 공급자 네트워크를 납품관계로 주로 인식하다 보니 공급자와 생산자(또는 고객) 간 관계를 정성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

- 가령 공급자와 생산자 간 관계에서 거래 관계 유형이나 상호간 지배구조에 대한 것은 지역의 산업생태계 및 향후 발전가능성에 영향을 크게 미침
- 가치사슬 접근은 이러한 관계를 납품관계로 한정하는 한계로 인해 보다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

○ 이러한 가치사슬 접근의 한계는 지역산업생태계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인해 두드러지고 있음

- 분석대상의 협소 문제는 산업연관표 등을 참조하여 보완할 수 있으나, 공급자와 고객 간 관계의 정성적 분석의 소홀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됨
- 지역산업생태계 패러다임의 의의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지역경제의 구성요소 간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음

### 3.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성 요소, 분석방법 및 그 의의<sup>1)</sup>

○ (지역산업생태계의 정의) 특정 산업군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완제품을 제공받는 수요자,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산업 환경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의 유기체들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또는 경제공동체

○ (지역산업생태계의 구조)미시적 지역산업생태계와 거시적 지역산업생태계로 구분되어 계층적 연계 구조를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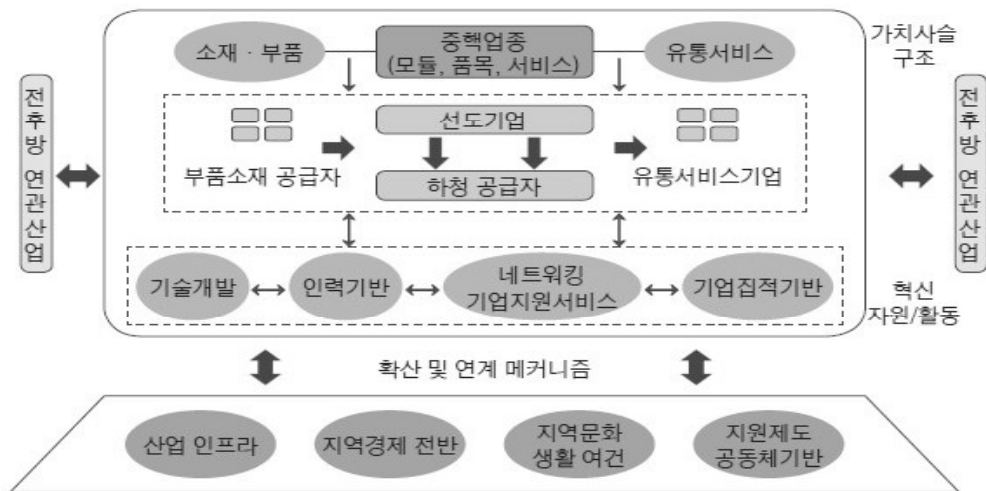
- 미시적 지역산업생태계는 개별산업 단위와 기업, 대학 및 연구소, 기업지원기관 등 산업활동 주체 단위에서 형성되는 생태계
- 거시적 지역산업생태계는 개별산업 단위의 미시적 지역산업생태계들이 전후방 연관관계를 통해 서로 연계되면서 형성되는 지역산업의 연관구조이고, 이를 근간으로 지역문화, 지역의 생활여건, 지원제도, 지역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연계되고 확산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

---

1) 여기서 제기하는 지역산업생태계는 김영수 외(2012) 『산업융합시대의 지역산업생태계 육성방안』에 근거하고 있음



〈그림 5-1〉 지역산업생태계의 기본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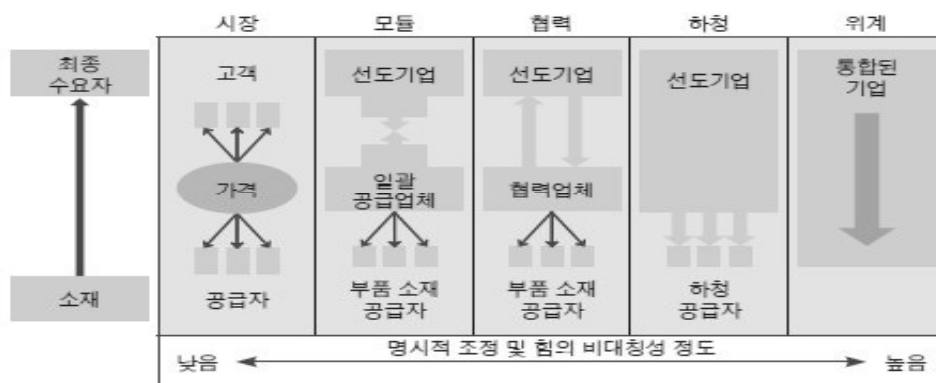


출처: 김영수 외(2012) 『산업융합시대의 지역산업생태계 육성방안』 127쪽

○ 미시적 지역산업생태계는 ①가치사슬구조, ②기업 간 연계구조, ③ 지역의 혁신자원 및 활동으로 구성됨

- (가치사슬구조)는 중핵업종(품목)을 중심으로 소재·부품→모듈→ 완제품→유통 등의 연쇄 구조를 가리키며, 기본적으로 공급자-고객 연쇄임
- (기업 간 연계구조)는 공급 주체와 고객 간 관계 유형 및 지배구조를 의미하며, 시장, 모듈, 협력, 하청, 위계 등 유형이 제시

〈그림 3-3〉 가치사슬의 지배구조 유형(기업 간 관계 유형)



자료 : Gereffi, Humphrey, and Sturgeon (2005), p.89.

출처: 김영수 외(2012) 93쪽에서 재인용

- (지역의 혁신자원 및 활동)은 기술개발 관련 자원과 활동, 인력기반, 네트워킹, 기업지원서비스, 산업의 집적 여건 등으로 구성

〈표 5-2〉 혁신자원 및 혁신활동의 평가 요인 및 체크리스트

	세부 항목	체크리스트
기술개발	기초 및 응용 기술개발	- 특화 분야와 관련된 대학, 연구소, 기업의 기술역량 - 관련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, 대학부설연구소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유무와 역량
	사업화 기술 및 단기에로기술 지원	- 관련 분야의 지역특화센터, 사업화기술 지원센터 등의 유무와 역량 -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단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여부
인력기반	전문기술인력	- 주요 기업의 전문기술인력 수급 실태 - 지역의 전문기술인력 공급 능력, 양성 체계
	숙련생산인력	- 주요 기업의 숙련생산인력 수급 실태 - 지역의 숙련생산인력 공급 능력, 양성 체계
네트워킹	산학연 연계 네트워크	- 산학연 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 정도 -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 정도 - 네트워크 중개기관의 유무, 역할, 활성화 정도
	기업 간 연계	- 동종 업계 협의회, 워크숍 등 - 이업종 간 협의회, 워크숍 등 - 기업 간 공동 물류, 공동 브랜드, 공동 마케팅 등의 활동
기업지원 서비스 기반	마케팅 지원	- 국내 및 글로벌 마케팅 전문 지원 역량(관련 센터나 지원사업 활성화 정도) - 공동 판매 및 전시시설 확충 정도
	지역 금융, 정보화 지원	- 벤처펀드, 중소기업 금융지원 - 기술정보, 시장 및 경영 정보 서비스
	비즈니스 서비스업	- 경영, 법률, 회계, 기술지원, 엔지니어링, 디자인, 장비 임대 등 비즈니스 지원서비스업의 발달 정도
집적 여건	산업단지 공급	- 산업단지 수급 여건 - 산업단지 경쟁력(분양가격,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정도)
	창업보육시설	- 협업화 단지, 창업보육시설, Post-BE 시설 등
	기업유치 활동	- 지자체 등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및 전문적 유치 활동 수행 여부

출처: 김영수 외(2012) 135쪽

- 이러한 미시적 지역산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대응한 분석은 공급네트워크 분석, GHS유형분류, 계층유형분석 등이 있음(아래표 참조)

구분	단위 및 주체	정태적 구조	분석방법	동태적 진화
미시적 지역산업 생태계	개별산업 또는 산업활동 주체	중핵업종 가치사슬구조	공급네트워크분석	- 개별산업의 경쟁력변화 - 산업주체의 행위변화
		기업간 연계구조	GHS유형분류*	
		혁신자원과 활동	계층분석방법(AHP)	
거시적 지역산업 생태계	산업구조 및 지역단위	특정 미시적 지역산업생태계 간 연관구조	지역경제의 건강성 진단	- 선도산업 및 산업구조 변화 - 지역산업의 전반적 발전
		지역경제 및 산업전반으로의 연계확산 메커니즘		

출처: 김영수 외(2012) 『산업융합시대의 지역산업생태계 육성방안』 129쪽을 재정리

주: \*GHS유형분류는 「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」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, 12(1), 2005, pp.78~104,의 저자인 Geraffi, Humphrey, and Sturgeon의 머리글자를 따서 편의상 명명한 것임

- 이러한 미시적 지역산업생태계에 입각한 분석방법은 지역산업생태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함
  - 기존 가치사슬 접근뿐 아니라 기업 간 연계구조와 지역의 혁신자원 및 활동을 포함하여 분석함
  - 다만, 이러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산업을 분석한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한 상황임
  - ※ 김영수 외(2012)는 이러한 방법을 동남권과 전라도의 충청산문에 적용한 바 있음

#### 4. 신성장동력산업 지역산업생태계 분석의 시행착오: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

- 필자가 2014년 전략과제로서 수행중인 <충남 차세대 전지산업 지역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>(2014.10.5~2015.3.31) 연구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와 난관을 소개하고자 함
- 중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은 초기시장형성단계에 있음을 감안, 연구방법론상으로 지역산업생태계 접근을 취함
  -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중소형 이차전지산업에 비해 중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은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이므로 지역산업생태계가 이제 형성단계에 있음
  - 또한 가치사슬구조는 충남TP에서 연구성과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중점을 이종산업간 융합(특히 전방산업효과)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점으로 다룸

충남TP 등 관련 기관의 기존 연구는 이차전지산업 생태계의 과제를 “부품·소재기업의 국산화(국지화), 디스플레이 등 연관산업 공급자의 이차전지로의 업종 전환”으로 요약하고 있으며, 이는 가치사슬구조의 분석으로부터 도출한 결론임

○ 이종업종 간 융합은 중대용량 전지생산업체와 그 직접 고객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

- 중대용량 이차전지는 그 속성상 고객 입장에서 부품 또는 구성품에 해당하며, 그 응용범위는 자동차(xEV)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군사용, 선박, 전동개인용이동장치(전기휠체어, 전기자전거, 전기오토바이 등)등으로 광범함
-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도 대기업(SDI)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전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

○ 간담회 결과 다량의 신선한 문제제기와 산업발전 과제가 도출됨

- 이차전지 업체는 現 xEV시장을 “저수익 고위험”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: 이차전지 장착 차량의 화재발생시 그 위험을 전지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
-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, 이의 대책과제화 가능성도 제안됨

○ 이외, 에너지저장장치, 선박 등 응용분야에 대해서 전지업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협력의 공감대 확보

-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 중부발전, 서부발전 본사 충남 이전, 도내 유인도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(미정) 등을 계기로 충남도가 산업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태안국립공원의 청정화, 다수의 소형어선 보유 등 상황을 고려하여 ‘전기어선’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제기  
※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사업화(2014년)하였으나, 이차전지 장착 모터의 동력문제로 인해 추진실적 미진

○ 또한 중소기업의 신제품(기술) 테스트시스템이 충남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그에 대한 워크숍도 개최

- 현재 충남의 이차전지 업체는 충남TP에 있는 장비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나 울산에 가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지적
- 이에 따라 제품개발 단계에 따른 지원서비스(시제품 테스트, 인증서비

스 등) 수요를 역내에서 갖추는 것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함

-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의 천안 이차전지 인증센터 건립, 충남 TP의 시제품 테스트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충남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계기 마련함과 동시에 전국적 범위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

○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융복합화와 지역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산업을 분석하는 작으나마 소중한 시도라는 의의가 있음

- 분석대상을 지역의 부품·소재-모듈-셀패킹이라는 통상적인 가치사슬 구조에 한정하지 않고 전방산업효과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
※통상적인 가치사슬은 충남TP의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
- 또한 제품개발 단계에 따른 지원서비스(시제품 테스트, 인증서비스 등) 시각에서 기업지원서비스를 고찰함으로써 지역산업생태계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,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연구의 구조가 단편적성을 띠게 됨

- 기업 간 연계구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역산업생태계 구축의 핵심인 공동플랫폼(common platform) 또는 공동자산(common assets)에 대한 식별에 실패
- 이에 따라 전체 산업생태계의 발전예측과 방향제시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분적 요소에 대해서만 정책함의를 도출
- 또한 이 문제는 업체간 네트워킹구축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근본적 한계로 작용함  
※ 현재 대기업, 중소기업, 학계에서 네트워킹의 핵심주체 선정과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부 있으나, 아직 모호한 상황임

<끝.>